

“법원은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곳입니다”

‘법원의 날’ 맞아 고려인·다문화 새날학교 방문한 광주지법 판사들

“월급 얼마예요” “모두에게 적용하는 법 기준 같나” 질문에 고영구 지법원장 솔직하게 답변...고려인마을에 쌀 기부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급여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날학교 학생 아나스타샤)
 “법원으로 오면 됩니다. 법원으로 와서 임금 청구 소송을 내면 됩니다. 학생들은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무상으로 변호사를 붙여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고영구 광주지법 법원장)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광주지방법원 고영구 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이 13일 오후 광주 새날학교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광주지법은 매년 9월 13일 법원의 날이면 지역 학생들을 법원으로 초청하는 ‘열린 법원’ 행사를 열어왔는데, 이날은 고 원장을 비롯한 광주지법 판사와 직원들은 ‘사회적 약자’가 있는 다문화 대안학교로 직접 찾아 나섰다.
 이날 판사들이 찾아가는 곳은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새날학교.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위탁형 학력 인정 교육기관으로 고려인과 다문화가정 자녀 75명의 배움터다. 한국이 낯선 학생들에게 일종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기관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으로 인해 조상들의 땅인 한국으로 올해 건너온 고려인 난민 학생 10여 명이 이곳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꿈을 키우고 있다.
 광주지법은 약 한 달 전 새날학교에 전화를 걸어 “법원의 날을 맞아 판사들이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법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학생들 꿈도 키워주는 시간을 갖고 싶다”며 행사 일정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는 학교 강당에서 이뤄졌다.
 이전영 교장이 “오늘 우리 학교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행사가 열렸다. 학생과 교직원들 대표해 제가 환영하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 순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환영사를 했다.
 고 원장은 “새날학교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살다가 2세 3세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법원은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곳이다. 법원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드리고 도움을 주고 싶어 찾아왔다”고 인사했다.

이어 법원장과 학생들의 문답 시간.
 학생들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재미있게 봤다며, 공금증이 쌓여 있다는 듯 질문 공세를 폈다.
 학생들은 “외국인도 판사가 될 수 있느냐” “법원장님 월급은 얼마냐” “재판을 할 때 한국 사람과 외국인 모두 적용하는 법 기준이 같느냐”고 물었다.
 고 원장은 월급 질문이 나올 땐 난처한 듯 주변을 살폈지만 이내 하나하나 솔직하게 답했다.
 “저는 올해로 32년째 법관을 하고 있고요. 월급은 1000만원이 조금 넘지만 구체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외국인인 한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적은 법원은 공평합니다. 외국인은 한국 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여러분도 변호사 시험 등 절차를 거쳐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분가량 이어진 대화에서 학생들 집중도는 고법원장이 월급을 공개할 때와 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최고였다. 문답 시간이 끝나자 학생들은 법원에서 준비해온 법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여학생 3명은 법복을 벗기 아쉬운지 마지막까지 법복을 벗지 않고 계속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 브이’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 학교 현관 앞 전체 기념 촬영이 끝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려 하자 일부 학생은 판사들에게 다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었다. 법원장에게도 “어느 대학 나왔느냐”고 물으며 “법원장님 명함을 받고 싶다”고 조르기도



광주지방법원의 ‘찾아가는 법원’ 행사가 열린 13일 광주시 광산구 새날학교에서 고영구 광주지법법원장이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했다. 고 원장은 당황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성균관대 졸업했어요”라고 웃으며 명함도 건넸다.
 이 학교 학생회장 김 율리아(18·고 3) 양은 “드라마 우영우를 친구들이 많이 봐서 법원에 관심이 많다. 판사님 하면 뭔가 딱딱한 느낌인데 오늘 강의 들으며 훨씬 기쁘고 친숙하게 느껴졌다. 함께 웃으며 사진도 찍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고 원장을 비롯한 광주지법 관계자들은 새날학교 행사를 마치고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찾아 고려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고, 법원 내 봉사 조직인 ‘무등봉사단’이 준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멸종위기종’ 빨제비갈매기 ‘영광에 등지’

전 세계 100마리 ‘신비의 철새’ 을 봄 육산도에 7마리 찾아와 중 청다오·대만 동부 해안 이동



세계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신비의 철새’ 빨제비갈매기의 이동 경로가 확인된 가운데 영광 육산도에서 주로 번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빨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 서해상 섬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동부 해안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빨제비갈매기가 올해도 영광군 육산도에서 번식한 것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빨제비갈매기 집단번식지 육산도서 빨제비갈매기가 처음 발견된 것은 2016년 4월로 이후 육산도서 번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육산도를 찾은 빨제비갈매기는 7마리로 이 가운데 한 쌍이 알을 낳고 새끼 1마리를 키웠다.
 육산도에 오는 빨제비갈매기는 2021년 7마리와 2020년 8마리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육산도서 빨제비갈매기 중요 번식지임을 보여준다고 생태원은 설명했다.
 육산도는 천연기념물 제389호인 ‘칠산도’에

속하는 무인도로 빨제비갈매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보호하고자 2016년 12월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빨제비갈매기가 다른 번식지인 중국 동부에서 ‘인간의 불법 알 채취’와 태풍, 같은 속인 큰제비갈매기와 교잡 등으로 잘 번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천연기념물이자 특정도서로 출입이 제한되는 육산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육산도를 찾은 빨제비갈매기 성체 가운데 한 마리는 지난해에도 육산도에 와서 생태원이 급속가라지를 부착했던 개체로 확인됐다. 6월 말 육산도를 떠난 이 성체는 8월 2일엔 전북 고창군 바닷가에서, 같은 달 4일에는 고창군에서 536km 떨어진 중국 산둥성 칭다오 자오저우 만해안에서 발견됐다.
 올해 가라지를 부착한 빨제비갈매기 중 성체

1마리와 새끼 1마리도 6월 말 육산도를 떠난 뒤 7월 말 고창군 해안서 갯벌갈매기 무리와 함께 생활하다가 중국 칭다오로 이동해 8월까지 머문 것이 확인됐다.
 빨제비갈매기는 인간이 생태를 거의 모르는 ‘신비의 철새’다. 3월 중순-말 국내 번식지에도 착해 알을 낳기 전까지는 밤에만 섬에 머무르고 번식기인 4월 말 이후에는 먹이활동을 할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간을 섬에서 보낸다.
 최근 5년 관찰 결과 4월 15-19일에 단 한 개의 알만 낳았으며 어미 새가 26-28일 알을 품으면 부화하고 새끼는 태어난 뒤 37-43일 만에 비행을 시작한다. 번식지를 떠나는 시점은 7월 중하순이며 번식지를 떠난 뒤엔 갯벌갈매기와 함께 지나다 8월 초 중국 산둥반도로 건너간다.
 빨제비갈매기는 1937년부터 2000년까지는 멸종했다고 여겨지다가 2000년 6월 대만 마주 섬에서 4쌍이 발견돼 존재가 확인됐다. 2013-2015년 중국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돼 2018-2020년 중국에서 번식하는 개체가 76-82마리로 증가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동식물 목록인 ‘적색목록’에 ‘위급’으로 등재됐으며 공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오를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 필립 콕스 ‘힌즈페터 국제보도상’ 대상 수상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2022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심사위원회는 대상인 ‘기묘한 선 세계상’ 수상자로 영국의 프리랜서 영상 기자 필립 콕스(사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을 취재했다. 항쟁의 상징으로 등장한 미스터리 시위자 ‘수단의 스파이더맨’을 취재해 수단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전 세계에 알렸다.
 뉴스 부문에는 미군 철수와 탈레반 재집권 혼돈 속에서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의 민주·인권·경제 위기 등을 보여준 일본 TBS 영상기자 와타나베 타쿠야가 선정됐다. 특집 부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한국 언론인으로는 유일하게 68일간 최전선인 도네츠크지역에서 시민들의 생존기를 취재한 윤재완 독립PD, 이를 보도한 전인태·김동렬 KBS PD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비경쟁부문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지난 5월 11일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의 난민촌을 취재하다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알자지라 소속 고(故) 슈린 아부 아르키 기자, 24년간 현장 기자로 함께하며 그의 마지막 현장까지도 기록하고 고발한 마지디 베누라 영상 기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27일 광주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신설 유치원·특수학교 교명 확정

효동유치원·선예학교

광주시교육청이 광주효동초등학교 부지에 건설 중인 ‘(가칭)광주효동유치원’의 교명을 ‘효동유치원’으로, 광산구 선암동(선운지구)에 짓고 있는 ‘(가칭)선운특수학교’는 ‘선예학교’로 각각 확정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 교육 전문

가, 시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립학교 교심위원회를 열고 개교 예정 학교의 특성 및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명을 결정했다.
 개교심사위는 효동유치원 개원시기를 2023년 9월 1일로 정했다. ‘선예학교’는 오는 2024년 3월 1일 개교한다. 이 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